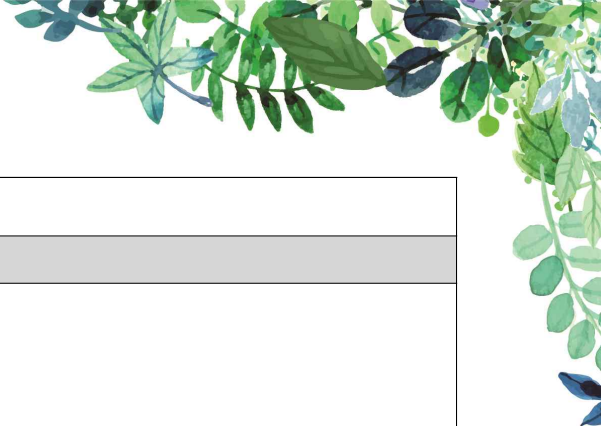


ABS BRIEF

나고야의정서 국내외 동향





기 간	2017년 12월 1일~31일
-----	------------------

요 약

● **국내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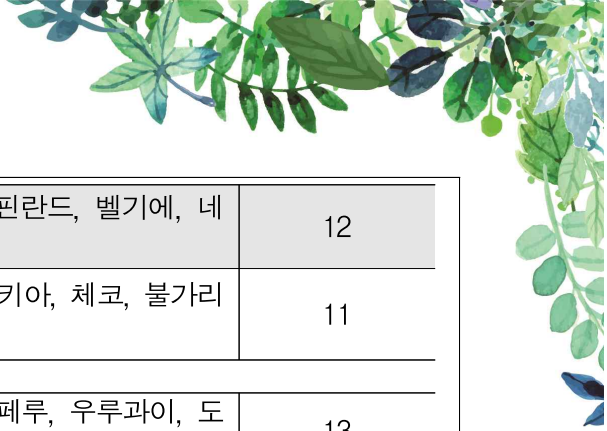
【신문기사 및 기타】

- 완도수목원 희귀 자생식물 한눈에 (‘17.12.3)
- [사이언스온고지신] 목화씨 밀수 문익점은 생물해적? (‘17.12.3)
- 나고야의정서 대응 제주 생물주권 확보 노력 (‘17.12.4)
- 전 세계 천연물신약 시장 급증…국내 제약사들 주목 (‘17.12.4)
- “먹으면서 살빼자”, 신토불이 다이어트 정책 추진 (‘17.12.5)
- 환경부-농식품부, 지속가능한 농업·환경을 위해 손잡는다 (‘17.12.8)
- 생물자원 원료 중개업계 상대로 나고야의정서 인식 높인다 (‘17.12.8)
- 로열티 부담 없는 국산 표고버섯 품종 재배 하세요 (‘17.12.13)
- 면역력 강화 한약재 ‘하수오’ 대량생산 길 열렸다 (‘17.12.14)
-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베트남 열대생물연구소 공동연구실 개소 (‘17.12.14)
- 복지부, ‘제2차 제약산업 종합계획’ 최종안 공개 (‘17.12.20)
- [특별기고] 나고야의정서 발효 대응 약용작물 종자 보급 방향 (‘17.12.27)
- [더깊은뉴스] “소똥구리 1마리 1백만 원”…현상금 걸 만하네 (‘17.12.28)
- [2017 농산업 결산]농기계, 작물보호제, 비료, 종자 (‘17.12.28)
- 특허청, “유전자원 출처공개 미니북” 발간 (‘17.12.28)

● **국외동향**

- 현재까지 나고야의정서 비준국은 104개국(103개국+EU)

지역	비준 국가	합계
아시아	요르단, 인도, 라오스, 시리아, 몽골, 타지키스탄, 인도네시아, 부탄, 미얀마, 베트남, 아랍에미리트, 캄보디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필리핀, 파키스탄, 중국, 카타르, 한국, 일본, 쿠웨이트, 레바논	22
오세아니아	피지, 미크로네시아, 사모아, 바누아투, 마셜제도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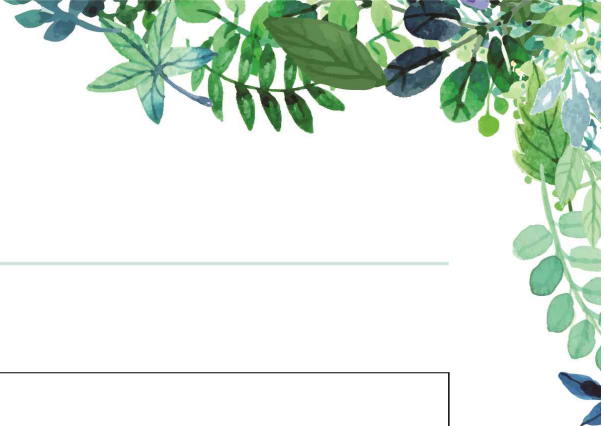


유럽	서부	노르웨이, 덴마크, 스페인, 스위스, 영국, 독일, 핀란드, 벨기에, 네덜란드, 프랑스, 스웨덴, 포르투갈	12
	기타	알바니아, 헝가리, 벨라루스, 크로아티아, 슬로바키아, 체코, 불가리아, 몰도바, 룩셈부르크, EU	11
중남미		파나마, 멕시코, 온두라스, 가이아나, 과테말라, 페루, 우루과이, 도미니카, 쿠바, 볼리비아, 아르헨티나, 앤티가바부다, 에콰도르	13
아프리카		가봉, 르완다, 세이셸, 모리셔스, 남아공, 에티오피아, 보츠와나, 코모로스, 기니비사우, 코트디브아르, 이집트, 부르키나파소, 베닌, 케냐, 나미비아, 우간다, 니제르, 부룬디, 마다가스카르, 감비아, 모잠비크, 수단, 말라위, 기니, 레소토, 콩고민주공화국, 콩고, 라이베리아, 모리타니아, 지부티, 토고, 세네갈, 잠비아, 말리, 스와질란드, 시에라리온, 카메룬, 상투메프린시페, 앙골라, 짐바브웨, 차드	41

○ 차드('18.1.9), 레바논('18.1.11)은 당사국(Parties, 현재 102개) 예정

【 신문기사 및 기타 】

- 필리핀, ABS 및 생물해적행위 방지 행정명령 초안 작성 ('17.12.3)
- 일본, 동경농업대학, '스리랑카 유용식물 산업화 컨소시엄' 설립 ('17.12.8)
- 생물다양성협약(CBD) 사무국, SBSTTA 21 캐나다에서 개최 ('17.12.11)
- 생물다양성협약(CBD) 사무국, '국제 산의 날'(12월 11일)을 기념 ('17.12.11)
- 국제상공회의소(ICC), 나고야의정서 효율성 평가 및 검토 보고서 제출 ('17.12.11)
- 생물다양성협약(CBD) 사무국, 나고야의정서 중간 국가보고서 공개 ('17.12.12)
- ITPGRFA 이사회, '농작물유전자원 염기서열' 정식의제로 채택 ('17.12.13)
- 생물다양성협약(CBD) 사무국, Future Earth와 협력강화 MOU 체결 ('17.12.13)
- 생물다양성협약(CBD) 사무국, WG 10 on 8(j) 캐나다에서 개최 ('17.12.13)
- 아프리카 주요국, 생물해적행위(biopiracy) 대책 논의 ('17.12.15)
- 생물다양성협약(CBD) 사무국, SBSTTA 21 회의결과 알림 ('17.12.16)
- 생물다양성협약(CBD) 사무국, WG 10 on 8(j) 회의결과 알림 ('17.12.18)
- 보츠와나, 사모아, 3개년 나고야의정서 이행 프로젝트 실시 ('17.12.28)



국내 동향

주요 동향 정보

【신문기사 및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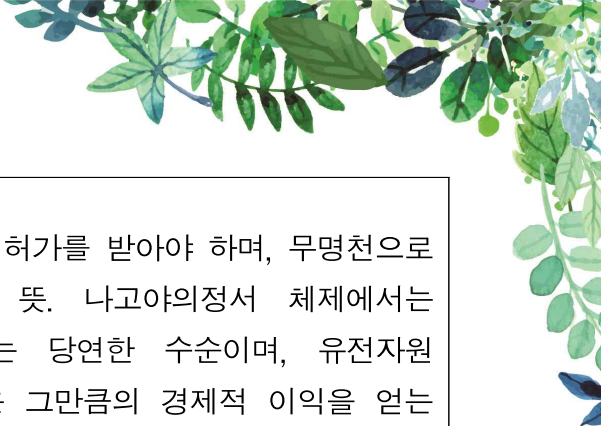
□ 완도수목원 희귀 자생식물 한눈에

- 전라남도산림자원연구소(소장 오송귀) 완도수목원은 난대 숲의 가치와 자생식물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난대 식물자원의 체계적 보전을 위해 ‘완도수목원의 자생식물’ 자료집을 발간.
 - 본 자료집에는 완도수목원에 자생하는 식물 770종 가운데 수목원을 대표하는 자생식물인 붉가시나무, 구실잣밤나무, 완도호랑가시나무, 금새우난초, 복수초 등 200종을 선별해 기존 자료와 현지 조사를 바탕으로 분포, 형태 및 생태적 특성, 자생지 환경을 수록.
-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에 따른 서식지 환경 변화로 생태계가 교란되고 생물종 다양성이 위협을 받고 있으며, 또한 국제협약인 나고야의정서가 발효된 이후 생물다양성 보전과 국가 간 자원 확보 경쟁, 생물주권 강화 등 산림에 대한 관심과 역할이 강조됨.
 - 이런 가운데 완도수목원은 난대 기후의 영향으로 대부분 난대상록활엽수림으로 이뤄진 국내 유일의 난대수목원으로서, 종 보전을 위해 난대성 식물 연구뿐만 아니라, 다양한 수목 유전자원의 수집·증식·보존과 자원화를 위한 학술적·산업적 연구를 추진 중.
 - 완도수목원은 그동안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등재를 위한 기초조사를 해왔으며 2018년부터는 완도군과 함께 본격적으로 등재를 위한 용역에 들어갈 예정.
- 오득실 완도수목원장은 “수목원의 자생자원 조사를 통해 자료집을 매년 시리즈로 발간하고 있다”며 “이 자생식물 자료집이 중요 식물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는데 소중한 자료로 활용되길 바란다”고 포부를 밝힘.

※ 아시아경제 (‘17.12.3)

□ [사이언스온고지신] 목화씨 밀수 문익점은 생물해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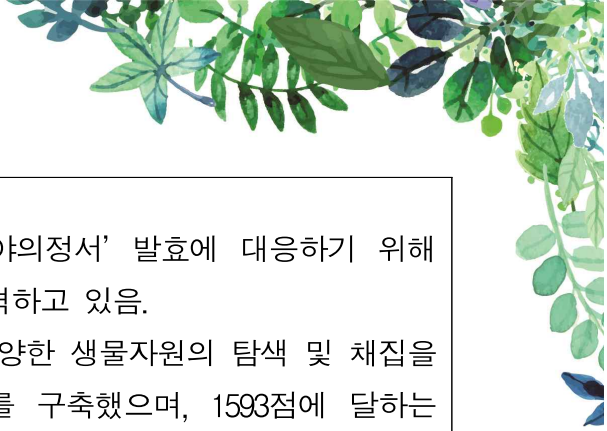
- 문익점 선생이 고려 말 원나라에 사신으로 가서 목화씨를 붓대 속에 숨겨 들어와 우리나라에서 무명천을 처음으로 짜기 시작했다고 교과서에 실려 있음. 만약 오늘날 외국의 씨앗(유전자원)을 몰래 들여와 국내에서 이용했다면 앞으로는 생물해적으로 고발당하는 대상이 될 것임.



- 고려 때 문익점 선생이 목화씨를 가져오려면 원나라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무명천으로 옷을 해 입었다면 원나라에 로얄티를 줘야한다는 뜻. 나고야의정서 체제에서는 유전자원을 이용하는 산업부문의 추가 부담 증가는 당연한 수순이며, 유전자원 수입국은 부담이 증가하는 반면에, 유전자원 수출국은 그만큼의 경제적 이익을 얻는 상황이 전개될 예정.
 - 올해 초 한국생명공학연구원 ABS연구지원센터에서 국내 산학연 연구자 1,000여명을 대상으로 의정서에 대한 인식도 조사를 한바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중 '알고 있다'는 비율은 28%에 그치고, 이중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이의 비율은 4%에 불과. 대부분(72%)은 잘 모르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지난해 조사 결과와 별반 다르지 않음. 2016년 결과를 보면, 알고 있는 비율은 17%(잘 알고 있음 0%)로 잘 모른다는 응답이 82%에 달함.
 - 해외자원을 수입한 국내 연구자가 외국과 맺은 계약서에 따라 해당 생물자원을 합당하게 이용하는지 여부를 감시·조사하는 점검기관은 만약 해당 생물에 대해 자원 수출국가의 요구가 있을 경우, 그 자원의 이용 실태를 조사해 결과를 보고해야 함. 이미 의정서 체제하에 들어온 이상 관련 국가점검기관을 운영해야 한다는 점이 큰 부담.
 - 조사에 필요한 인력 확보 및 전문성, 시간 등 기회비용 문제와 더불어 조사 대상자인 산학연 연구자의 연구 아이디어 및 기업비밀 누출도 우려됨. 철저한 준비 없이 새로운 국제질서를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이 현실이라면, 이제라도 예상되는 문제해결과 국내 피해의 최소화를 위해 현명한 지혜모아야 함.
 - 이덕일 씨가 쓴 '우리역사의 수수께끼'에 따르면 문익점 선생 이야기의 사실은 우리가 아는 것과 다름. 당시 목화는 원나라의 반출금지 품목이 아니었고, 들어온 목화의 재배법을 알지 못한 점이 장애물이었음. 문익점 선생은 시험재배로 나무 한 그루를 겨우 살려냈고, 이후 장인과 함께 3년간의 노력 끝에 목화를 전국에 보급. 문익점 선생의 공로는 유용한 외래종자의 도입과 그 식물자원의 재배기술을 개발, 백성에 전파한 것이며, 우리도 이를 본받아 실용적 과학자의 탐구정신을 실천해야 할 것임.
- ※ 전자뉴스 ('17.12.3)

□ 나고야의정서 대응 제주 생물주권 확보 노력

- 제주는 섬이라는 특수성과 한라산, 꽃자왈 등의 영향으로 다양한 생물종이 분포하고 있어 '생물다양성의 보고(寶庫)'로 불리며, 유네스코 지정 생물권보전지역인 제주의 생물다양성은 BT산업의 근간으로 손꼽히며 제주 미래 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음.
- '바이오 제주를 선도하는 아열대자원 연구 거점'을 비전으로 내건 연구소의 주요 역할은 (1) 생물자원 정보구축, (2) 산업화 소재 개발 및 제품화 연구, (3) 1차 산업 고부가가치화 연구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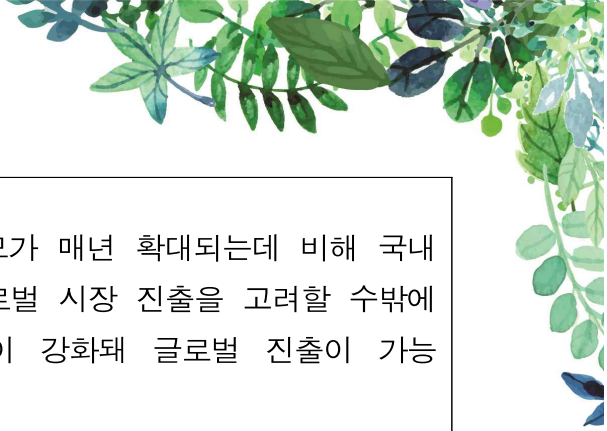


- 연구소는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나고야의정서’ 발효에 대응하기 위해 제주 생물다양성의 DB 정보 플랫폼을 구축하는데 노력하고 있음.
-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제주도 및 주변지역에 대한 다양한 생물자원의 탐색 및 채집을 진행한 결과 총 2676종 1만751점에 대한 과학정보를 구축했으며, 1593점에 달하는 추출물 자원을 확보해 기업체에 제공.
- 연구소는 육상식물(1003종), 해조류(342종), 곤충(470종)의 표본자료를 비롯해 미생물(771종)과 생물자원을 근거로 하는 천연추출물(575종)과 DNA(686종) 등 다양한 형태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있으며, 2016년에는 제주 및 국내 자생생물 중 10년간 연구소가 확보한 표본들 가운데 그 종의 특징과 산업적 활용도가 높은 확증표본을 선별해 ‘제주생물종 표본자료집’을 발간.
- 우수 소재 유용자원은 동물실험 및 인체적용시험을 통해 건강기능식품이나 천연신약, 향장품 소재 등으로 활용함으로써 1차 산업을 제주형 6차 산업으로 육성시키고 있으며, 이 같은 연구 개발과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제주가 나고야의정서 발효에도 차질 없이 BT산업을 선도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음.

※ 뉴스1 (‘17.12.4)

□ **전세계 천연물신약 시장 급증…국내 제약사들 주목**

- 이용남 영진약품 수석연구원은 한국바이오제약협회에서 열린 ‘제3차 바이오시너지 기업파트너스 심포지엄’에서 천연물 의약품의 해외시장 진출 원인을 분석하며, 국내 최초 미국 FDA IND 승인을 받은 자사의 COPD 치료제의 ‘YPL-001’의 사례를 공유.
- 천연물신약이란 인체 효능이 경험적으로 알려진 천연물 작용원리를 규명한 뒤 그 성분을 이용해 조성, 성분, 효능 등이 새로운 의약품을 뜻한다. 미국에선 Botanical Drug, 유럽은 Herbal Medicinal Products, 중국에선 중약신약이라고 명명.
- 글로벌 천연물 의약품 시장은 연 평균 10%의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며, 2013년 24조원, 천연물 ETC 시장은 18조원으로 집계됨. WHO는 세계 천연물 의약품 시장을 2011년 187조원에서 2023년 423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
- 이영진 수석연구원은 “글로벌 천연물 의약품 시장을 선도하는 것은 미국, 유럽, 중국, 일본 등의 국가들”이라며, “시장 규모는 미국이 가장 크지만, 건식까지 포함하면 유럽의 시장 점유율이 더 크다”고 설명.
- 글로벌 천연물 신약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자 국내 제약사들도 해외 진출을 시도 중.
- 종근당, 영진약품, 휴온스, 에이치엘사이언스 등의 국내 제약사들은 천연물신약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정부도 선진국 수준의 천연물 의약품 개발 시스템을 구축하고 세계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11년 천연물신약사업단을 설립, 운영해 제약사들을 지원하고 있음.



- 이영진 수석연구원은 "세계 천연물 의약품 시장 규모가 매년 확대되는데 비해 국내 의약품 시장에서 천연물 의약품은 2%에 불과해 글로벌 시장 진출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며, "과거와 달리 국내 제약사들도 연구역량이 강화돼 글로벌 진출이 가능해졌다"고 배경을 설명.
- 정부지원 기업 중 하나인 영진약품의 COPD 치료제 'YPL-001'은 국내 천연물 의약품 중 최초로 FDA IND 승인, 임상 1상 및 2a 단계를 완료했으나, 까다로운 FDA의 해외 허가 규정을 통과해야 하고, 생물 다양성 협약 및 나고야의정서를 고려해야 함.
- 이 연구원은 "FDA의 IND 승인을 얻어내는 과정에서 사전상담을 한 뒤 전략을 수립해 실행해 옮기는 것이 좋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공 가능한 임상 프로토콜 설계하는 것"이라며 "천연물신약은 주로 식물을 개발한 것인데 외국의 생물 종을 이용했을 경우 나고야의정서에 의해 이익공유 대상이 되므로, 이런 외부 변수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

※ 데일리메디 (‘17.1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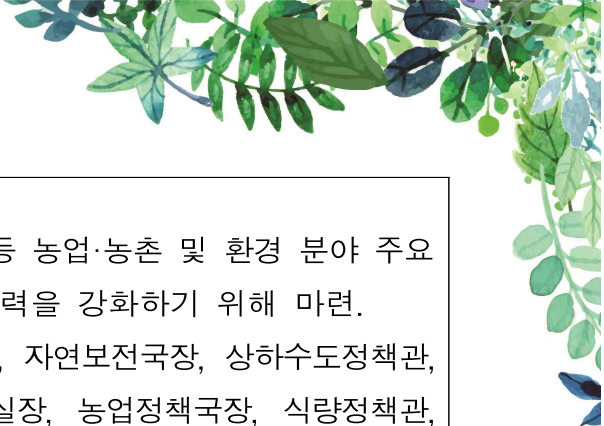
□ "먹으면서 살빼자", 신토불이 다이어트 정책 추진

- 농촌진흥청은 내년 초까지 사전 예방적 항비만 기능성 농식품 발굴과 소비 활성화 연구개발(R&D) 전략을 수립한다고 밝힘. 우리 농식품을 이용한 국민건강과 농가소득 확대, 농생명 자원화가 목적.
- 항비만 R&D 전략은 기능성 농식품을 이용한 비만예방에 초점을 맞춰, 단일 농산물 소재를 이용하거나 상호 결합한 기능성 식품 발굴이 추진. 버섯, 해조류 등 기존 비만에 도움을 주는 농수산물을 포함해 과학적 검증 가치가 높은 농산물을 발굴·검증. 기존 소재를 발효, 가공해 기능성 식품으로 고도화하는 대상도 선정.
- 내년 8월 시행되는 '나고야 의정서' 대응을 위하여, 2018년 초까지 R&D 전략을 수립하고, 이르면 2019년부터 약 300억원을 투입해 5년 과제로 추진할 계획.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중 항비만 성분을 우선 발굴해 자원화하면 향후 수출에 도움을 얻는다는 논리.
- 최지호 농진청 농업연구사는 "국가는 체계적으로 국민건강을 보장하고, 농가는 농식품 소비 활성화에 따른 수익 확대를 도모하는 시너지가 날 것"이라며, "보건복지부 의약계통과 함께 농진청에서는 농산물을 기반으로 하는 국민생활 밀접형 비만 관리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힘.

※ 전자신문 (‘17.12.5)

□ 환경부-농식품부, 지속가능한 농업·환경을 위해 손잡는다

- 환경부(장관 김은경)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는 12월 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양 부처 장관 주재로 「환경부-농식품부 정책협의회」를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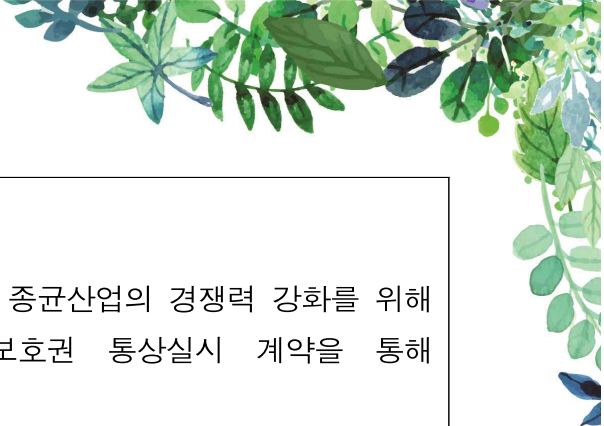
- AI(조류인플루엔자), 위해 외래생물, 가축분뇨·매몰지 등 농업·농촌 및 환경 분야 주요 정책현안에 대해 양 부처의 상호 이해를 높이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
- 참석자는 환경부 장관, 기획조정실장, 물환경정책국장, 자연보전국장, 상하수도정책관, 대변인, 정책보좌관 등과 농식품부 장관, 기획조정실장, 농업정책국장, 식량정책관, 축산정책국장, 대변인, 정책보좌관 등.
- 협의회 주요내용은 양 부처 간 정책협의체 운영을 통해 AI, 위해 외래생물(붉은불개미 등), 가축분뇨·매몰지, 영농폐기물 및 야생동물 피해 예방 등 농업·농촌 및 환경 분야의 실질적·지속적인 협력 이행 체계 구축.
- AI 선제적 대응을 위한 협력 강화, 위해 외래생물 국내 유입 및 확산 차단, 가축 매몰지 환경관리, 가축분뇨 처리제도 합리화 등 공동의 정책현안에 대해 국가적 차원에서 협력하기로 했음.
- 농촌환경 개선을 위한 축사 환경관리 강화, 생물산업 진흥을 위한 나고야의정서 대응 협력, 지속가능한 농업용수 관리 등 양 부처의 정책현안에 대해서도 공동으로 검토하기로 했음.
- 양 부처는 협력과제 이행을 위해 장관급 정책협의회와 함께 협력과제별로 국장급 실무협의회도 함께 운영할 계획이며, 동 협의회 등을 통해 역지사지의 열린 마음으로 상호 입장을 경청하여 대안을 마련하고, 중요 정책의 경우 양 부처 공동으로 발표하거나, 공동행사, 공동현장 방문 등을 추진해 나가기로 결의.

※ 정책브리핑 (‘17.12.8)

□ 생물자원 원료 중개업계 상대로 나고야의정서 인식 높인다

-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관장 백운석)은 12월 8일 서울 웨라톤 팔래스 호텔에서 '생물자원 원료 중개업계 나고야의정서 인식제고'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
- 이번 행사는 생물자원 원료 중개업계를 대상으로 나고야의정서 관련 국내외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나고야의정서 대응지원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세미나에서는 화장품, 제약, 식품, 소재 분야 등 국내 200여 생물자원 원료 중개업체가 참여하여 해외 유전자원을 이용할 때에 지켜야 할 기본적인 이행 절차 및 준비사항 등을 소개.
- 최근 제조·유통업계로부터의 유전자원 원산지 정보 및 절차준수 증빙 서류 요구가 급증하여 원료 중개업체들이 대처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음.
- 백운석 국립생물자원관장은 "해외 생물자원의 수입 시 중개 역할을 하는 원료 중개업체가 나고야의정서에 대해 이해하고 유전자원의 접근 절차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민관, 산학연이 협력하여 나고야의정서에 대처해 나가야한다"라고 밝힘.

※ 정책브리핑 (‘17.1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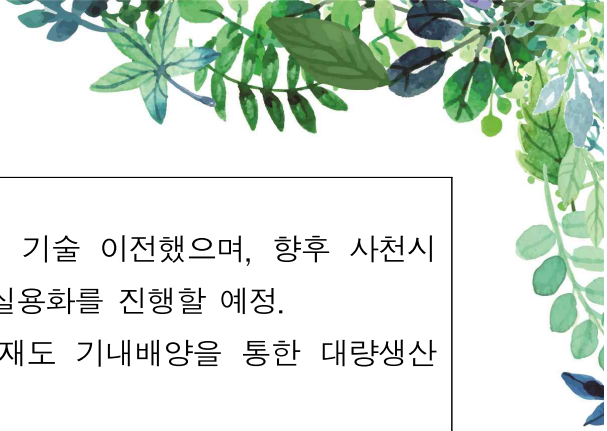


□ 로열티 부담 없는 국산 표고버섯 품종 재배 하세요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표고버섯의 종균주권 확보와 종균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산품종을 개발하고, 민간 종균배양소와의 품종보호권 통상실시 계약을 통해 보급하고 있다고 밝힘.
- 국립산림과학원에 따르면 한국형 명품 브랜드로 생산될 원목재배용 품종인 ‘백화향’과 중국산 수입배지를 대체할 품종인 톱밥재배용 ‘산백향’ 등 4개의 품종을 국내 주요 종균배양소 17곳에 보급.
- 이번 보급은 골든 시드(Golden Seed) 프로젝트를 통해 개발된 국산 표고버섯 품종의 보급을 확대하고 국내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지난 3월 체결된 (사)한국종균 생산자 협회와의 업무협약(MOU)을 통해 이뤄짐.
- 국산 표고 신품종의 보급은 외국 품종을 재배하고 있는 버섯 재배자들이 국제식물 신품종보호동맹(UPOV) 및 나고야의정서 등의 국제협약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로열티 지급의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예상.
- 산림청 산림자원과 조준규 과장은 “나고야의정서가 발효됨에 따라 국가 산림생명자원으로 개발된 국산 표고버섯 품종이 국내외 시장에서 충분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함.
- * 골든 시드 프로젝트: 글로벌 종자강국 도약과 종자산업 기반구축을 위한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농촌진흥청 공동의 국가 전략형 종자 연구개발 사업. 2012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4911억 원이 투입되며, 산림청은 표고버섯 신품종 개발을 위해 10년간 총 100억 원을 지원할 예정.
- ※ 뉴스1 (‘17.12.13)

□ 면역력 강화 한약재 ‘하수오’ 대량생산 길 열렸다

- 한국한의학연구원은 K-herb연구단 강영민 박사팀은 하수오를 단기간에 조직 배양해 종묘를 대량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 경남 사천시농업기술센터에 기술이전 했음.
- 하수오는 피로회복 및 노화방지 등 면역력 강화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한약재이며, 우리나라에서는 하수오가 적하수오와 백하수오로 구분된다는 잘못된 정보로 인해, 전혀 다른 한약재인 은조롱의 덩이뿌리인 백수오가 백하수오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것이 다시 하수오로 둔갑돼 혼·오용되고 있음.
- 또한, 은조롱에 비해 덩이뿌리의 성장이 빠른 중국 기원 식물인 이엽우피소의 종자가 국내에 들어와 은조롱 대신 재배되고 있어, 한약재 원식물의 기원이 확실한 하수오의 국내 재배가 시급한 실정.
- 한의학연은 기술개발을 위해 충청북도농업기술원에서 하수오 종자를 분양받아 이를 받아시켜 하수오 배양묘를 생산했고, 산림청 산하 산림과학원 산림약용자원연구소와의 협력연구를 통해 배양묘의 필드 생산성을 확인.



- 이 기술과 관련된 특허는 경남 사천시농업기술센터에 기술 이전했으며, 향후 사천시 농민들에게 배양묘를 보급해 시험 재배를 통한 보급 실용화를 진행할 예정.
- 연구팀은 이번 기술과 함께 지황, 반하와 같은 한약재도 기내배양을 통한 대량생산 연구를 진행중.
- 권오민 한의학연 원장 직무대행은 “나고야의정서로 국가생물유전자원 확보가 날로 중요해지고 있다”며 “한약자원도 대량생산이 가능해져 국내 수급 뿐 아니라 해외 수출도 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힘.

※ 헤럴드경제 (‘17.12.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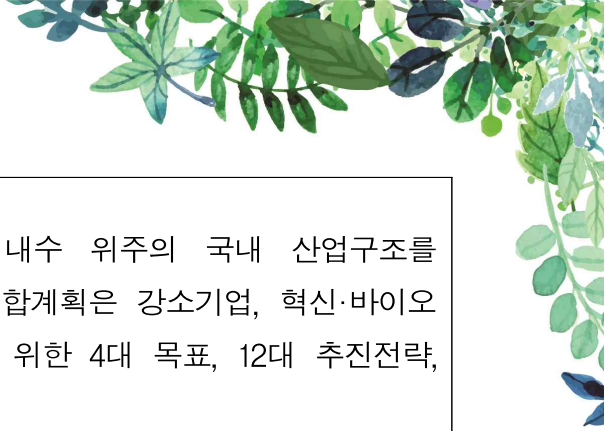
□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베트남 열대생물연구소 공동연구실 개소

- 국립해양생물자원관(관장 김상진)이 베트남 열대생물연구소 공동연구실을 개소.
 - 베트남 열대생물연구소는 베트남국가과학기술원(VAST)소속으로 생명과학, 생태학, 환경학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와 함께 산업과 농업발전을 위한 기술이전, 훈련 등을 담당.
 - 베트남 호치민시 열대생물연구소에 설치된 공동연구실은 향후 베트남 해역의 해양생물 채집과 시료처리 등 효과적인 연구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 공동연구실은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첫 해외 연구실로 이번 공동연구실 개소에 따라 베트남 해역의 해양생물 다양성 활용을 위한 연구거점을 확보.
- 개소식에는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안용락 분류연구실장, 모영동 대외협력부장, 양영익 해양생명정보부장과 베트남 열대생물연구소 후앙 야 손 소장, 은구엔 반 투부소장 등이 참석.
 - 국립해양생물자원관 김상진 관장은 “나고야의정서가 공식 발효돼 해외의 해양유전자원 채집과 반출이 어려워짐에 따라 해외 현지 연구거점의 중요성 대두되고 있다”며 “베트남 공동연구실 개소로 자원관의 연구 영역을 확장하고 심층적인 열대생물 연구를 위한 터전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함.

※ 중도일보 (‘17.12.14)

□ 복지부, '제2차 제약산업 종합계획' 최종안 공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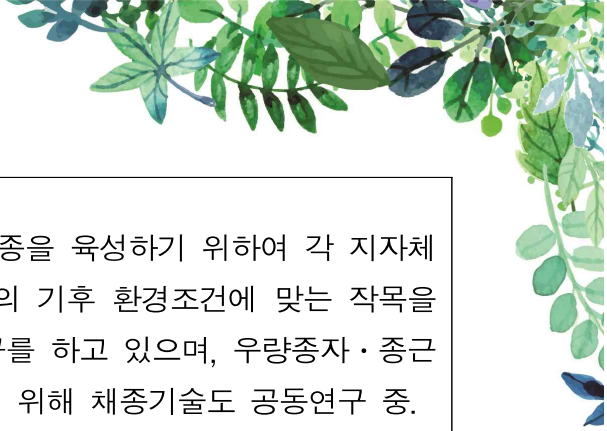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0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보건산업(제약·의료기기·화장품)을 혁신성장 선도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향후 5년간(2017~2022) 추진할 '제2차 제약산업 육성·지원 5개년 종합계획'을 발표.
 - 지난 11월 공청회 발표 추진방향을 큰 수정·변경 없이 각 내용을 유지한 수준으로, 제약계 R&D·일자리·수출·제도개선 4대 분야에서 첨단바이오의약품 R&D 개발 및 스마트공장 지원, 나고야의정서 대응 등 폭넓은 지원 내용을 담고 있음.



- 지난 제1차 제약산업 종합계획은 중소기업·제네릭·내수 위주의 국내 산업구조를 탈피하기 위한 전략 위주로 구성됐는데, 이번 2차 종합계획은 강소기업, 혁신·바이오 신약, 수출 중심의 혁신성장 선도 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4대 목표, 12대 추진전략, 37대 실천과제로 구성.
- 내용은 크게 '국민에게 건강과 일자리를 드리는 제약 강국으로 도약'이라는 비전에 따라, 크게 (1) 연구개발(R&D), (2) 일자리, (3) 수출지원, (4) 제도개선 등 4개 부문으로 나뉨.
- 나고야의정서에 대비한 제약계 인식 제고 노력, 해외 유전자원 대체를 위한 국산 유전자원 확보 및 DB화, 보건신기술 인증 의약품 인증기간 연장 등 초기안착 지원 확대, 한국형 의약품 유통관리기준(GDP) 재정립과 제약 업종의 특성을 반영하는 배출권거래제 운영 노력 등도 포함됨.
- 박능후 장관은 "이번에 발표하는 제약·의료기기·화장품 종합계획은 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히 담기 위해 산업 관계자, 학계 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수립했다"며 "이번에 수립한 종합계획이 추진될 경우, 보건산업은 5년 후 혁신성장을 선도하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미래형 신산업으로 도약하게 될 것"이라고 밝힘.
- ※ 약업신문 ('17.12.20)

□ [특별기고] 나고야의정서 발효 대응 약용작물 종자 보급 방향

- 농촌진흥청 약용작물과 김영국 농업연구관은 "최근 전 세계 각국에서 약용식물을 이용한 건강식품, 의약품 및 천연물산업이 급성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가운데, 국제적으로 약용식물자원을 보존, 이용하려는 노력이 집중되고 있다."고 말하며, 나고야의정서 발효 대응 약용작물에 관한 다음과 같은 글을 기고.
- 국내에서도 생물다양성협약에 의한 나고야의정서가 발효되어(2017.8.17.) 원료와 유전자원의 해외의존도가 높은 국내 산업계 및 연구계는 불가피한 타격이 예상됨에 따라, 다가오는 미래에 대비를 하기 위해 국산 약용작물 종자보급 등의 연구가 시급.
- 현재 국내에서 약용작물은 약 60작목이 재배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품종이 개발된 작목은 32작목 96품종이 있지만, 가공업체에서 선호하는 품종이 적어 신품종의 실용화율이 낮은 실정.
- 나머지 재배되는 28작목은 표준품종이 없어 기원이 불분명한 재래종과 수입산을 재배하고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백수오와 이엽우피소를 구분하지 못하고 혼용 재배하는 사례도 있었음.
- 약용작물 종자 생산보급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농촌진흥청 약용작물과에서는 2017년 3월 농림축산식품부와 공동으로 '약용작물 종자보급협의체'를 발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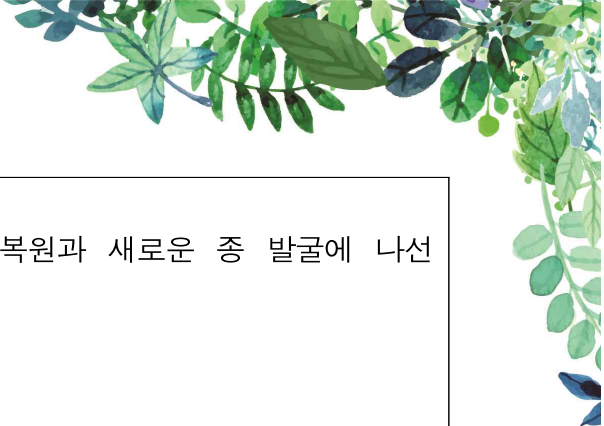


- 본 협의체에서는 아직까지 품종이 없는 작목의 표준품종을 육성하기 위하여 각 지자체 약용작물연구소와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있음. 각 지역의 기후 환경조건에 맞는 작목을 분담하여 빠른 시일 내에 표준품종을 만들기 위한 연구를 하고 있으며, 우량종자·종근 증식률이 저조한 약용작물의 안정적인 종자를 생산하기 위해 채종기술도 공동연구 중.
- 기원이 확실한 약용작물 품종 또는 우량종자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농업기술 실용화재단과 종자보급센터를 기후가 약간씩 다른 지역을 5개 권역별로 나누어 국내에서 주로 많이 재배되는 40여 작목에 대한 품종 또는 우량종자를 생산해서 보급할 계획. 올해 생산된 품종과 우량종자는 농업인 단체 또는 농업인이 종자를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내년 초에 종자 공급이 가능한 양을 기관 홈페이지와 언론매체 등에 공지할 예정임.

※ 새전북신문 (‘17.12.27)

□ [더깊은뉴스] “소똥구리 1마리 1백만 원”...현상금 걸 만하네

- 정부는 사라진 동물의 종 복원을 위해서 마리당 많게는 100만원까지 포상금까지 걸어 놓음.
 - 과거 농촌에 흔했던 곤충 소똥구리가 1970년 이후 종적을 감춤. 우리나라에 기록된 소똥구리는 모두 38종이고, 소똥을 경단처럼 만들어 굴리는 종은 왕소똥구리와 수식어가 붙지않는 소똥구리 등인데 지금은 발견되지 않음.
 - 소똥구리는 가축의 배설물을 분해해 땅을 기름지게 하고, 민간요법에서는 각종 염증 치료에 사용하기도 했음.
 - 소에게 사료를 먹이고, 사료에 첨가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소똥구리가 서식을 못함. 환경부는 이렇게 사라진 소똥구리를 복원하기로 하여, 소똥구리 50마리를 살아서 들여오면 마리당 1백만 원씩에 사겠다는 구매 공고를 내어, 현재 10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
- 2000년대 사라진 명태를 복원하기 위하여, 2014년 정부는 50만 원의 현상금을 내걸었고. 결국 다음해 1월 알을 밴 명태를 확보
 - 어미로부터 알을 채취해 부화시킨 동해수산연구소 연구팀은 2015년 1만 5천 마리를 시작으로 올해 2차례, 치어 30만 마리를 동해로 돌려보냄.
 - 1907년 발간된 연구서를 통해 우리나라 연안에 바다뱀이 살고 있다고 기록돼 있었지만 그 실체가 확인된 적이 없음. 이에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연구팀이 2014년 바다뱀에 100만 원의 현상금을 건 뒤 2015년에 포획되었고, 알을 품은 넓은대 큰바다뱀까지 발견되면서 바다뱀 증식 연구라는 예상 밖 수확도 얻음.
- 생물자원 확보에 이처럼 열을 올리는 이유는 바로 2010년 채택된 나고야의정서 때문이며, 특정 국가의 생물 유전자원을 이용해 다른 나라가 신약개발이나 화장품 개발 등으로 이익을 내면 이익의 일부를 나눠야 함.



- 생물자원 확보가 곧 돈이 되는 시대에 멸종위기종 복원과 새로운 종 발굴에 나선 움직임은 한층 빨라지고 있음.

※ 채널A뉴스 ('17.12.28)

□ [2017 농산업 결산]농기계, 작물보호제, 비료, 종자

- 올해 종자업계는 일부 종자회사에서 이상기후로 인한 재파종 등으로 매출이 소폭 상승했지만 전체적으로는 매출과 판매면에서 지난해와 비슷한 모습을 보였음.
- 이 가운데 종자업체들의 경쟁은 심화돼 2년 전부터 종자업계에 본격적으로 투자를 시작한 노루그룹의 더기반은 지난 10월 R&D(연구개발) 기술력 확보를 위해 경기 안성시에 연구단지를 설립했으며, CJ의 CJ브리딩 등도 본격적인 투자에 나서고 있음.
- 국내 내수시장의 경쟁이 심화되고 포화상태에 이르자 농우바이오, 팜한농 등의 기업들은 해외로 눈을 돌리기 시작. 특히, 농우바이오는 올해 인도 현지 법인을 설립한 지 10년을 맞았으며 중국, 터키 외에도 여러 국가에서 법인을 설립한 상황이며, 2020년 매출 1500억원 달성을 위해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에 법인 설립을 통한 매출 증대를 목표로 내세우고 있음.
- 지난 8월 17일 발효된 나고야의정서로 종자 대기업들은 품종보호권, 특허권 등 지적 재산권 분쟁 소송피해를 우려. 향후 종자 수출 시 나고야의정서 이행 확인서 요구증가로 인한 준비도 필요한 상황이나, 나고야의정서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한 종자업체는 대기업 정도에 불과.
- 종자업체들은 CBD(생물다양성협약)발효, 나고야의정서 채택(2010.10), 나고야의정서 발효 (2017.8.17) 등의 시차에 따른 적용 범위가 모호하다는 입장.

※ 농수축산신문 ('17.12.28)

□ 특허청, “유전자원 출처공개 미니북” 발간

- 특허청에서는 '해외출원 시 유의하세요! 유전자원 출처공개 미니북'을 발간하여, 국내출원인들의 인식제고에 힘쓰고 있음.
- 본 책자는 유전자원 및 이와 관련된 전통지식을 이용한 발명을 해외에 특허출원하고자 하는 출원인이 참고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의 논의 동향과 각국의 유전자원 및 이와 관련된 전통지식의 출처공개에 관한 의무 조항, 이를 위반하였을 때 제재 조항을 해당 법조문과 함께 담고 있음.

* 전문열람

http://www.kipo.go.kr/kpo/user.tdf?a=user.jp_info.others.BoardApp&board_id=others&catmenu=m04_02_05

※ 특허청 홈페이지 ('17.12.28)



국외 동향

주요 동향 정보

【 신문기사 및 기타 】

□ 필리핀, ABS 및 생물해적행위 방지 행정명령 초안 작성

- 필리핀 두테르테 정부는 자국 내 유전자원의 공평한 이익공유 및 생물해적행위 방지를 담은 행정명령 초안에 대한 마무리 작업을 위해, 환경자연자원부 차관을 중심으로 기술작업그룹(Technical working group, 이하 TWG)을 구성하고, 지난 11월 17일 회의를 개최한 것을 시작으로 막바지 검토 작업 중.
- 주요내용으로는 (1) ABS 절차 및 업무를 총괄하는 관계부처합동기구 설립, (2) 유용자원 국가인벤토리 구축, (3) 인벤토리-특허 -R&D-상업화 절차도 마련 등.
- 조세핀 사토(Josephine Ramirez Y. Sato) 하원의원은 “생물해적행위로부터 필리핀 유전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더욱 강력한 국가정책이 시급하다”고 주장.
- 사토 의원은 생물다양성협약 및 나고야의정서 당사국인 필리핀의 ABS 이행을 담은 하원법안 2163을 발의한 바 있음. 현재 필리핀은 나고야의정서 이행법령이 없음.
- ※ BusinessMirror (‘17.12.3)

□ 일본, 동경농업대학, ‘스리랑카 유용식물 산업화 컨소시엄’ 설립

- 동경농업대학(타카노 카츠미 학장)이 스리랑카 고유 식물종 연구 및 개발을 위해, 주식회사 알비온(코바야시 쇼이치 대표), 국립대학법인 사가대학 농학부(사가시 아리마 부장), 스리랑카 와안바 대학(마칸두라, 아베신하 학장)과 산학연 4자간 스리랑카 유용식물 산업화 컨소시엄 협약을 체결.
- 아유르베다 등 고유종 관련 전통지식이 풍부한 스리랑카는 2014년부터 (주)알비온과 스리랑카 전통식물연구소를 설립해 공동 연구를 진행 중.
- 동경농업대학은 상동의 연구소 개설 초기부터 연구에서 얻은 이익이나 기술 등을 스리랑카 산업지원을 위해 사용할 목적이었으며, 작년 8월 20일 일본 내 나고야 의정서가 발효됨에 따라 제공국인 스리랑카와의 이익공유를 명확히 하도록 이번 컨소시엄을 구성하게 되었다고 밝힘.
- 해당 컨소시엄 논의를 위해 동경농업대학 종합연구소 야마모토 유우지 소장(주)알비온, 사가대학, 와안바 대학 관계자들은 지난해 11월 스리랑카 각 기관 담당자들을 방문하여 면담을 진행.
- * 관련 대학 보도자료 전문 열람: <https://www.u-presscenter.jp/item/a4d2434ea2e3b9334fe297d0c6647a9d.pdf>
- ※ 동경농업대학(東京農業大學) 보도자료 (‘17.12.8)



□ 생물다양성협약(CBD) 사무국, SBSTTA 21 캐나다에서 개최

- 제21차 생물다양성협약 과학기술자문보조기구회의(SBSTTA 21)이 2017년 12월 11일~14일간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개최.
- 600여명의 귀빈들이 참석할 이번 SBSTTA 21은 2010년에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자”라는 가치에 국가들이 동의함으로 설립.
- 이번 주제는 생물다양성 주류화, 생물다양성과 인간 보건, 지속사용 가능한 야생 동물관리, GBO 제5판, 생물다양성 전략계획 2010-2020 평가, 생물다양성 관련 새로운 이슈 등.

* 관련 CBD 보도자료 전문 열람: <https://www.cbd.int/doc/press/2017/pr-2017-12-11-sbstta-en.pdf>

※ CBD 사무국 홈페이지 ('17.12.11)

□ 생물다양성협약(CBD) 사무국, '국제 산의 날'(12월 11일)을 기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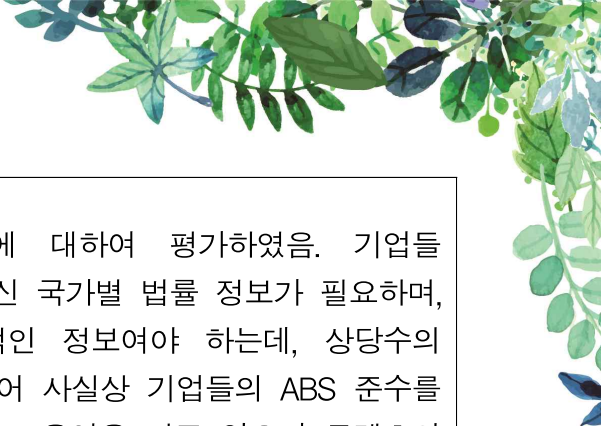
- 국제 산의 날(12월 11일)을 맞이하여, 올해는 “기후, 빈곤, 이주 등의 압박에 처한 산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생물다양성협약 사무국 크리스티나 파머 사무총장이 메시지를 보냄
- 거의 10억 인구의 고향인 산은 지구의 육지 면적의 약 22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으며, 많은 다양한 동식물 자원을 공급하고 있으며, 그 중에 물 공급이라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 세계 인구의 약 40퍼센트는 물 공급, 농업, 수력 발전, 생물 다양성에 간접적으로 산에 의존하며, 산은 많은 전통적인 관리 관행과 자급식 농업 양식의 본거지임.
- 끝으로, 크리스티나 사무총장은 국제 산악인 기념일 행사에서 “산악 생물다양성 유지와 생물다양성협약의 3가지 목표, 생물 다양성에 대한 전략적 계획 수립, 2011-2020년 전략적 계획 수립 등의 노력을 기울여 산악인을 위한 지원을 하겠다.”고 밝힘.

* 관련 CBD 연설문 전문 열람: <https://www.cbd.int/doc/speech/2017/sp-2017-12-10-mountain-en.pdf>

※ CBD 사무국 홈페이지 ('17.12.11)

□ 국제상공회의소(ICC), 나고야의정서 효율성 평가 및 검토 보고서 제출

- 국제상공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이하 ICC)는 ABS 테스트포스팀을 구성하여, 기업 관점의 '제1차 나고야의정서 효율성 평가 및 검토 보고서(First assessment and review of the Effectiveness of the Nagoya Protocol: business views)'를 CBD 사무국에 제출.



- 첫째, CBD 사무국의 ABS 정보공유체계(ABSCH)에 대하여 평가하였음. 기업들 입장에서는 손쉽게 파악 가능한, 정확하고 분명한 최신 국가별 법률 정보가 필요하며, 이러한 법률 정보가 실제로 준수함에 있어 실용적인 정보여야 하는데, 상당수의 당사국들이 ABSCH에 최신 정보를 게재하지 않고 있어 사실상 기업들의 ABS 준수를 막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현재의 ABSCH는 전체적으로 운영은 되고 있으나 콘텐츠의 한계가 존재하여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 국제상공회의소는 당사국들에게 분명하고 완성된 ABS 법률 정보와 국가연락기관의 실제 연락처 정보를 ABSCH에 게재할 것을 요청. 가능할 경우 이러한 정보들이 영어로 작성되어 기업들의 글로벌 의무준수를 촉진할 수 있기를 바람.
- 국제상공회의소는 보고서에서 CBD 사무국의 ABSCH가 국제의무준수인증서 (Internationally Recognized Certificate of Compliance, 이하 IRCC) 발급 등 핵심 역할을 담당한다고 하며, 특히 기업들은 IRCC가 국제 인증서인 만큼 기업들이 원하는 법적 확실성 보장 측면에서 핵심 문서로 주목. 기업들은 IRCC를 ABSCH에 신속히 게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평가.
- 둘째, 유전자원 종류 및 이용 방식에 따라 모범관행 및 모델계약도 다양한 방식으로 개발되고 있으나, 대부분의 기업들은 유전자원 접근 및 이용자 의무준수 제도의 적용 범위가 지금보다 더 명확해지기를 바라고 있음.
- 셋째, 나고야의정서 이행이 과학발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당사국들이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촉구. 과학발명은 금전적, 비금전적 이익창출 뿐 아니라 생물다양성 보호와 사회발전을 위한 유용한 기술·제품 개발에도 필수적인 요소임.
- 기업 등의 유전자원 이용자들은 불분명하거나 일관성 없는 ABS 규정으로 인해 법적 확실성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며, 실천하기 어려운 복잡한 ABS 절차들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따라서, ICC는 이 문제에 대한 국가적, 국제적 차원의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평가.

* 보고서 전문 열람:

<https://iccwbo.org/publication/first-assessment-review-effectiveness-nagoya-protocol-business-view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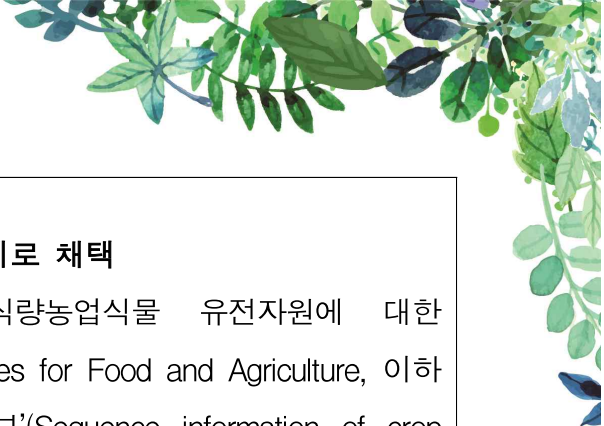
※ 국제상공회의소 홈페이지 ('17.12.12)

□ 생물다양성협약(CBD) 사무국, 나고야의정서 중간 국가보고서 공개

- 64개국(59개 당사국, 5개 비당사국)이 CBD 사무국에 나고야의정서 중간 국가보고서(Interim National Report)를 제출.
- CBD 사무국은 올해 네 차례 공지문(2월, 8월, 10월, 11월)을 통해, 본보고서 제출을 권장.
- 각 국가별 나고야의정서 관련 이행체계 현황 및 준비과정에 대한 내용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음.

* 국가보고서 전문 열람: <https://absch.cbd.int/search/nationalRecords?schema=absNationalReport>

※ ABSCH 홈페이지 ('17.12.12)



□ ITPGRFA 이사회, ‘농작물유전자원 염기서열’ 정식의제로 채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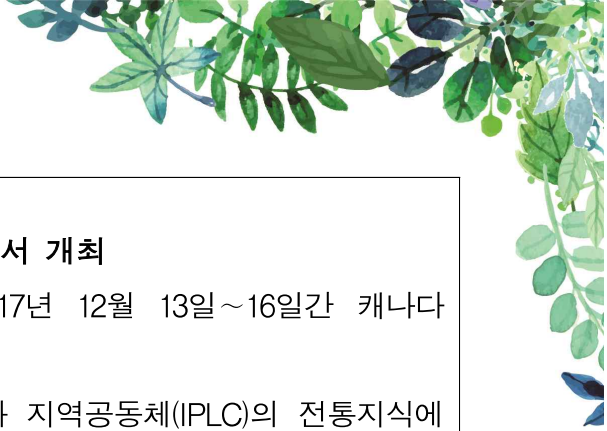
- 지난해 10월 르완다에서 개최되었던, ‘제7차 식량농업식물 유전자원에 대한 국제조약(International Treaty on Plant Genetic Resources for Food and Agriculture, 이하 ITPGRFA)’ 이사회가 ‘농작물 유전자원 염기서열 정보’(Sequence information of crop genetic resources)를 2019년부터 정식 의제로 논의하는 데 합의.
 - 제7차 이사회에서는 농작물 유전자원 염기서열 정보의 공식 논의여부를 두고 아프리카 개발도상국들과 유럽, 미국 등 선진국들 간의 팽팽한 긴장이 있었음.
 - 아프리카 국가들은 농작물 유전자원 염기서열 정보를 ITPGRFA 내에서 본격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유럽 및 미국 등은 염기서열 정보의 경우 ITPGRFA 적용범위가 아니며, 이미 CBD에서 다루고 있어 중복 사안이라고 밝힌바 있음.
- 본 이사회는 절충안으로 내년부터 ITPGRFA 당사국 및 비당사국, 이해관계자들의 ‘농작물 유전자원 염기서열 정보가 ITPGRFA의 목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의견서를 취합하고 2019년 열리는 제8차 이사회에서 의제 항목으로 논의할 것을 결정.
 - ※ Third World Network (‘17.12.13)

□ 생물다양성협약(CBD) 사무국, Future Earth와 협력강화 MOU 체결

- CBD 사무국과 Future Earth가 다양한 핵심 영역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MOU에 합의.
 - 첫째, 새로운 연구 개발을 촉진: 과학적 공동체를 제공하여 관련 지식을 제공함으로써 2010-2020년 전략적 계획에 대한 이행 경로의 개발을 지원.
 - 둘째, 증거기반 정책에 대한 인식제고 및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들의 필요를 보조: 생물다양성과 인류보건에 관한 협약에 대한 지원과 같은 맥락에서 파악된 정책 필요성에 부합하는 Future Earth의 관련 연구에 대한 우선순위 정리.
 - 셋째, 자연과 천연 자원의 보존, 보호, 개선 그리고 다양한 분야의 생물다양성 주류화에 대한 공유 및 글로벌 목표를 달성: 사회의 다른 분야에서 중요 고려사항으로서 생물다양성의 유지를 지원.
- Future Earth는 과학기술제휴를 촉진하여 연구자와 혁신자들이 정책 입안자, 기업 및 시민단체와 협력하여 지구의 생물자원의 지속가능성을 가속화하는 국제기구로서, 전세계 20개국에 지부가 있음.

* 관련 보도자료 전문 열람: <https://www.cbd.int/doc/press/2017/pr-2017-12-12-MoU-FutureEarth-en.pdf>

※ CBD 사무국 홈페이지 (‘17.12.13)



□ 생물다양성협약(CBD) 사무국, WG 10 on 8(j) 캐나다에서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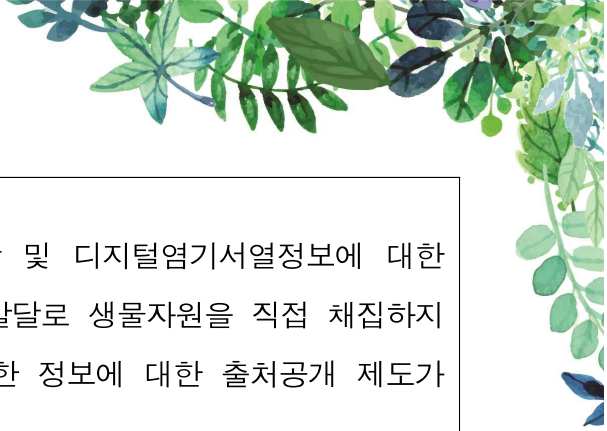
- '제10차 전통지식 작업반회의(WG 10 on 8(j))'가 2017년 12월 13일~16일간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개최.
- 세계에서 모인 약 500여명의 귀빈들이 모여 토착민과 지역공동체(IPLC)의 전통지식에 대한 토의를 이번 제10차 전통지식 작업반회의에서 진행.
- 주요 토의의제와 사안은 (1) 루쑤리사식 자발적 지침서의 수정본을 확정하고 이집트에서 열릴 제 14차 CBD 당사국 총회에서 다룸, (2) 본 작업반의 미래: 향후 프로그램이나 이행부속기구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가 여부 등, (3) IPLC의 전통지식의 공헌, 혁신 및 관행이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2030 의제의 이행과의 연관관계, (4) 주요 용어와 주제 정의 확정, (5) IPLC의 역할과 공헌을 증대하기 위한 방법, (6) 생물다양성 경제 메커니즘의 보호주의

* 본 WG 관련 문서와 정책 요약본 전문 열람: <https://www.cbd.int/doc/press/2017/pr-2017-12-12-wg8j10-en.pdf>

※ CBD 사무국 홈페이지 ('17.12.13)

□ 아프리카 주요국, 생물해적행위(biopiracy) 대책 논의

- 나미비아, 카메룬, 잠비아 등 아프리카 환경 전문가들이 생물해적행위 문제에 대한 대책을 논의.
- 이들은 나고야의정서 발효 후, 아프리카연합(AU)의 「나고야의정서 공동 이행을 위한 전략 가이드라인(2015)」이 마련됐지만 생물해적행위에 대한 규제가 여전히 미흡하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
- 마다가스카르는 자국 식물인 페리윙클(Catharanthus roseus)을 관상용 식물로 재배하여 세계시장에 판매했고 제약 회사들은 이 식물을 이용하여 암치료제를 개발하였지만, 본 식물자원의 이용에 대한 마다가스카르와의 경제적 이익공유는 전혀 없음.
- 전문가들은 생물자원 탐색 및 상업화 과정에서 생물탐사활동이 이루어지지만 정작 생물탐사자와 지역공동체 간에는 이익공유가 없다며 이는 생물해적행위라고 주장.
- 나미비아 대표는 “일찍이 서양 식물학자들이 아프리카 전통 치료사들의 전통지식을 조사한 뒤 이를 바탕으로 약을 개발하였다. 우리의 전통지식으로 만들어졌지만 이제는 비싸서 구매할 수 없는 약이 되어 돌아왔다”고 밝힘.
- 카메룬 대표는 “세계 팜유(palm oil)시장의 85%를 차지하는 말레이시아 팜유는 카메룬에서 팜 나무 수분매개곤충(Elaeodobius kamerunicus)을 수입하기 전까지 팜유 생산에 큰 어려움을 겪었음. 그러나 오늘날 말레이시아는 팜유로 국부를 늘리고 있지만 카메룬에 대해 어떠한 보상도 주지 않고 있다”고 주장.



- 한편, 생물해적행위에 대한 규제와 함께 합성생물학 및 디지털염기서열정보에 대한 규제도 필요하다고 밝힘. 합성생물학이나 나노기술 발달로 생물자원을 직접 채집하지 않아도 자원에 대한 접근 및 이용이 가능해져 이러한 정보에 대한 출처공개 제도가 실시되어야 한다고 주장.

※ Mongabay 뉴스 홈페이지 ('17.12.15)

□ 생물다양성협약(CBD) 사무국, SBSTTA 21 회의결과 알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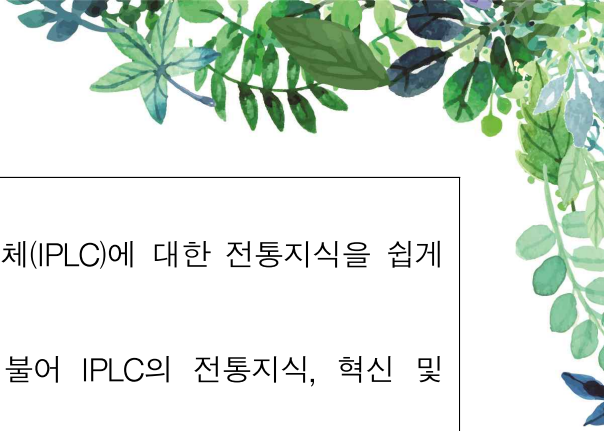
- 2017년 12월 11일~14일간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개최되었던 ‘제21차 생물다양성협약 과학기술자문보조기구회의(SBSTTA 21)’의 결과를 알림.
 - 생물다양성협약의 SBSTTA 21은 2020년 이후의 세계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에 대한 논의를 알릴 주요 권고안을 채택하였고 이 권고안은 COP 14에 제출될 예정.
 - 미래의 생물다양성 목표를 준비하기 위한 생물다양성, 기후 및 사회 생태학적 시나리오에 생물다양성의 중요성이 강조되었으며, 인류보건과 생물다양성 정책 사이의 연결 고리들은 광범위한 정부 간 협력의 기초가 확립되는 차원에서 강조되어야 한다고 주장.
 - 그 밖에 “생물다양성을 위한 2050 비전에 대한 시나리오”, 이번에 개발된 “지속가능한 야생동물관리 가이드라인” 적용 방법, 생물다양성 전략계획 2010-2020 평가, 생물다양성 관련 새로운 이슈 등을 논의.
- 이번 SBSTTA는 특히 에너지, 채광, 생산과 진행 그리고 인류보건에 대한 생물다양성 주류화에 대하여 처음으로 다뤘는데, 향후 더 큰 활약이 기대됨.
 - 제5차 지구생물다양성전망 보고서(GBO-5)에 대해 당사국 대부분 IPBES의 평가결과를 포함한 다양한 정보를 참고하여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과 제6차 국가보고서의 적시 제출의 중요성에 동의.

* 관련 CBD 보도자료 전문 열람: <https://www.cbd.int/doc/press/2017/pr-2017-12-16-sbstta-en.pdf>

※ CBD 사무국 홈페이지 ('17.12.16)

□ 생물다양성협약(CBD) 사무국, WG 10 on 8(j) 회의결과 알림

- 2017년 12월 13일~16일간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개최되었던 ‘제10차 전통지식 작업반회의(WG 10 on 8(j))’의 결과를 알림. 각국 정부가 글로벌 생물다양성정책에 대한 전통지식의 기여에 대하여 합의.



- 박물관, 식물원 등이 보유하고 있는 토착민과 지역공동체(IPLC)에 대한 전통지식을 쉽게 반환하기 위한 루쨌리사식 자발적 지침서에 합의.
- 대표단은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203년 의제와 더불어 IPLC의 전통지식, 혁신 및 관행의 이행에 대한 기여를 인정.
- 본 지침서 이행에 있어 IPLC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향후 준비방안을 COP 14(이집트 샤름엘셰이크.'18) 중에 진행되는 2018 유엔 생물다양성 컨퍼런스에서 논의하기로 결정.

○ 아래와 같이 기타 회의결과 및 주요논의 의제가 있었음.

- (1) “전통지식”과 “IPLC 보전지역” 등 주요 용어 정의 확정, (2) IPLC의 역할과 공헌을 증대하기 위한 방법, (3) 생물다양성 경제 메커니즘의 보호주의, (4) IPLC의 전통지식의 공헌, 혁신 및 관행이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2030 의제의 이행과의 연관관계, (5) 본 작업반의 미래: 향후 프로그램이나 이행부속기구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가 여부 등
- 생물다양성 협약 8(j) 조항 및 관련 조항의 통합작업을 위해 새로운 상설 보조기구를 설립하자는 논의가 제기됨에 따라, 기구 설치 시 각 나라에 미치는 이익과 추가 부담금 및 업무부담 등의 향후 발생가능한 사안들에 대한 고려 필요.

* 관련 CBD 보도자료 전문 열람: <https://www.cbd.int/doc/press/2017/pr-2017-12-16-8j-en.pdf>

※ CBD 사무국 홈페이지 ('17.12.18)

□ 보츠와나, 사모아, 3개년 나고야의정서 이행 프로젝트 실시

- 보츠와나 환경천연자원보전관광부와 UNDP(유엔개발계획)가 향후 3년간 “나고야의정서 이행을 위한 인적자원, 법체계, 제도역량 강화” 프로젝트를 실시할 예정.
- 보츠와나는 프로젝트 실시 전 지난 11월 9일 ABS 워크숍을 개최하였으며, MAT 및 PIC 양식 마련의 중요성, ABS법체계 구축에 있어 IPLC 등 사회 구성원 전원의 참가 및 협조가 중요함을 강조.
- 사모아 정부는 지구환경기금(GEF)로부터 미화 35만 달러(3억8천만원 상당)를 지원받아 자국 내 ABS 역량강화를 위한 ABS 프로젝트를 실시할 계획.
- 이번 프로젝트는 3년동안 진행되며 사모아 천연자원환경부에서 주가 되어 UNDP 지부 및 글로벌 ABS 프로젝트 팀과 협업할 예정.

* 사모아 관련 기사 원문 열람:

http://sobserver.ws/en/13_11_2017/local/26631/Samoa-to-share-in-benefits-from-genetic-resources.htm

※ UNDP 홈페이지 ('17.12.28)



ABS BRIEF 제68호

발행일 2018년 1월 1일
발행인 장규태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원장
발행처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편집인 장영호 ABS연구지원센터 센터장
안민호 ABS연구지원센터 연구원
이수효 ABS연구지원센터 연구원
강태호 ABS연구지원센터 연구원
편집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 ABS연구지원센터
(전화) 042-860-4626, 042-879-8332~4
(FAX) 042-879-8339
(홈페이지) www.abs.re.kr
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SSN 2586-2804(온라인)



ABS BRIEF (Volume 68)

January 1, 2018
Published by Korea Research Institute of Bioscience &
Biotechnology (KRIBB)
Edited in ABS Research Support Center, KRIBB
Supported by Ministry of Science and ICT
Tel: +82-42-860-4626, +82-42-879-8332~4
FAX: +82-42-879-8339
Homepage: www.abs.re.kr
ISSN: 2586-2804(Online)

[비 매 품]

'ABS BRIEF - 나고야의정서 국내외 동향'은
ABS연구지원센터 홈페이지(www.abs.re.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본지에 수록된 기사 등의 내용은 작성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의 공식적 견해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